

조선어 토의 연구방향에 대한 분석

양 목 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의 언어생활은 시대의 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새롭게 변하고 풍부화됩니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2권 246페이지)

조선어의 민족적특성을 뚜렷하게 반영하고있는 토를 더욱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오늘 우리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토에 대한 연구에서는 그 다의적의미와 그로부터 이루어지는 동의적의미관계를 밝히는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 말의 우수성의 한 측면이 매 토들이 나타내는 의미의 풍부성과 정밀성에 기초한 같은 의미계렬의 미세한 차이에 있기때문이다.

여기로부터 조선어 토에 대한 연구에서는 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먼저 토의 의미에 대한 연구를 객관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지향시키는것이다.

토의 의미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주관적측면이 강하다. 그러므로 토의 연구를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토의 의미연구에서 매 토들의 의미를 객관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과정은 곧 우리 말을 현대화의 방향으로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으로 된다.

일반적으로 토의 의미연구에서는 각이한 문장들을 선택하여 거기에 쓰인 토들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하나하나 라렬하고있다.

이 과정에 하나의 토에 대한 의미분석을 서로 각이하게 하는 경향들이 나타나는데로 부터 토의 의미연구에 객관성을 부여하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알수 있다.

토의 의미연구에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수학적방법을 도입한다. 토의 의미연구에서 수학적방법을 도입하면 매 토들의 구체적인 의미분류에 기초하여 기본의미와 부차적의미를 확률적으로 가를수 있다. 수학적방법으로 가른 기본의미와 부차적의미를 통하여 매 토의 의미를 명명할수 있다.

다음으로 토의 의미연구를 규범화하는 방향으로 지향시키는것이다.

토의 의미연구를 규범화한다는것은 매 토들의 의미를 구체적이고도 세밀하게 정의한데 기초하여 기본의미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정립한다는것을 말한다.

토는 문장속에서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실지로는 다의성을 가지고있으므로 토의 다양한 의미를 리해하는데서 다른 토와의 동의적관계를 리해하는것이 더 어려운 문제로 나서고있다. 그것은 토가 다의성측면에서 다양한 동의적관계를 맺고있기때문이다.

실례로 여격토 《에》와 위격토 《에서》는 다같이 장소의 의미를 기본의미로 하고있지만 구체적으로 볼 때 차이가 있다.

여격토 《에》는 그것이 붙은 단어를 동사, 형용사와 이어주면서 움직임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관계하는 대상과 장소를 나타낸다면 위격토 《에서》는 그것이 붙은 단어를 주로 동사와 이어주면서 그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나타낸다. 이 토들은 문장에서 보어로 쓰이면서 장소의 의미를 나타낸다.

례; 김동무는 체육경기가 끝난 다음에 체육관에 남았다.

오늘 체육관에서 축구경기가 진행된다.

우의 두 실례에서 토 《에》와 《에서》는 다 행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나타내지만 구체적인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여격토 《에》는 움직임이 일정한 시간내에 이루어지고 그 상태가 그대로 보존되고있는 장소를 나타내고있다. 즉 행동이 어느 한 계선에서 정지된 행동으로 넘어가서 그것이 지속되는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에 붙었다. 이러한 계열의 단어에는 《있다, 남다, 두다, 놓다, 서다, 쌓다, 앉다, 보이다, …》 등이 있다.

위격토 《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이루어질 때의 상태가 마지막까지 지속되는 장소를 나타낼 때에 쓰인다. 즉 행동이 진행되는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에 붙는다.

례; 그는 언제나 대학에서 공부한다.

옥이는 거리에서 김동무를 만나 이야기한다.

토 《에》와 《에서》는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단어에 붙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뜻이 서로 다르다.

례; ① 우리는 어제 거리에서 나무를 심었다.

② 우리는 어제 거리에 나무를 심었다.

③ 우리는 공원에서 화단을 만들었다.

④ 우리는 공원에 화단을 만들었다.

우의 실례에서 ①과 ③의 《거리》와 《공원》은 행동이 진행되는 장소를 나타내고 ②와 ④의 《거리》와 《공원》은 각각 나무를 심는 자리, 화단을 만드는 자리를 나타내고있으므로 두 토는 쓰임에서 차이를 가지고있다.

현대에 와서도 일정한 기간 여격과 위격은 그 구획이 모호한것으로 남아있어 절충적인 이름으로 여-위격이라고 한 때도 있었지만 오늘날 문화어에서는 여격과 위격이 명백하게 갈라져 쓰이고있다.

이와 같이 매 토의 기본의미를 중심으로 같은 의미들을 부류별로 묶어 그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한 문법적기준을 정확히 구별해주어야 각이한 환경과 대상에 맞는 규범화된 문장을 만들수 있다.

다음으로 토의 의미연구를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지향시키는것이다.

토의 의미에 대한 연구를 현대화의 방향으로 지향시켜나간다는것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문장의 컴퓨터자동처리에 필요한 과학리론적담보를 충분히 밝혀준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컴퓨터로 우리 말을 자유자재로 정확하고 빨리 분석처리할수 있는 리론적담보를 충분히 밝혀준다는것이다.

컴퓨터자동처리를 위해서는 토의 기본의미에 대한 리해만으로는 부족하며 매 토의 기본의미와 부차적의미의 구체적인 관계까지도 정확히 밝혀주어야 한다.

토의 의미에 대한 연구를 현대화의 방향으로 지향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의미와 부차적의미를 동종의 관계에서 차이점과 공통점을 밝혀야 한다.

토 《고》와 《아서》의 의미를 보면 토 《고》의 기본의미는 선후의 의미이고 토 《아서》의 기본의미는 방식의 의미이다. 이 두 토는 기본의미에서는 서로 다르지만 부차적의미들과의 관계에서는 방식의 의미로 서로 같이 쓰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실지 기본의미와 부차적의미와의 차이를 정확히 구별하여 써야 한다.

례; 선생님을 만나고 몇가지 물으려고 합니다. X

나는 집을 떠나고 도서관에 가는 길입니다. X

우의 두 실례문장이 틀리는것은 《만나다》, 《떠나다》와 결합된 토 《고》가 행동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것이 아니라 행동수행의 방식을 나타내고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행동수행의 방식을 나타내는 토 《아서》를 써야 한다.

토 《고》도 방식으로 쓸 때가 있는데 이때는 토 《고서》와 바꾸어쓸수 있는 경우이다.

례;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총을 잡고(고서) 조국을 보위하는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는것이 하나의 생활기풍으로 되어있다.

영옥이는 연분홍 치마저고리에 꽃을 곱게 달고(고서) 극장에 갔다.

행동수행의 입자가 행동을 하는데 관계하는 대상을 직접 자기 몸에 가지고있는 상태를 나타낼 때에는 방식의 의미를 토 《고서》로 나타내고 기타의 경우에는 토 《아》로 나타낸다.

례; 옥이는 외투를 입고서 집을 떠났다. (방식)

우리는 책을 모아 도서관을 꾸렸다. (방식)

매 토들의 기본의미와 부차적의미를 품사선택, 문장성분에 의한 토선택과 같은 각이한 조건들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는것으로써 컴퓨터에 의한 언어자료기지작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토의 의미연구를 지향시켜야 한다.

토의 의미연구에서는 현실적인 연구방향에 맞게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토에 대한 연구도 토의 개수확정에 치우칠것이 아니라 의미의 측면을 기본으로 하여 구조적측면과 형태적측면을 다같이 고려하여 연구하는것이 합리적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어느 한 측면만을 절대시하여서는 안된다.

언어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한것은 의미적측면이다. 그것은 모든 서사생활에서 단어나 토가 의미를 떠나서는 그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하기때문이다. 현재 토에 대한 연구에서도 그 의미에 대하여 중요시하고있다.

특히 토의 의미연구에서 같은 의미계렬의 토들을 실천에서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그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어떤 경우에 교체하여쓸수 있는가 등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많다. 이에 명백한 대답을 주자면 토의 의미연구를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토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인식에 실지 도움을 줄수 있는 방향으로 좀더 접근하여야 한다.

토는 그 뜻이 풍부하고 쓰임이 다양하므로 토에서 의미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인 요구로 제기된다.

토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여러가지 방법가운데서 객관성이 부여된 확률-통계적방법을 택하기로 한다.

많은 경우에 언어자료분석에 수학적인 방법을 받아들이고있는데 그것은 다양한 문장들에 대한 분석을 보다 정확하게 하면서도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어떤 대상의 의미를 100%에 가까운 정확도로 분석하려면 그 대상전체를 파악해야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으므로 일정한 기준량을 선정하고 그가운데서 일반성을 분석하는것이 편리하기때문이다.

토의 의미연구를 객관성이 부여된 확률-통계적방법으로 하기 위해서는 토를 선택하는것이 선차적문제이다.

《조선어빈도수사전》(1993)에서는 610개의 토를 선정하고있다.

이에 기초하여 현재 토의 개수에 대한 구분을 보면 제일 많이 쓰이는 토는 20여개,

기초토는 60여개, 기본토는 120여개, 결합가능한 토는 400여개(여기서 사전에나 있고 거의 쓰이지 않는것을 제외하면 370여개), 결합토까지 포함한 토는 610여개가 있다.

우의 토구분에서 어느것을 택하겠는가 하는것은 토의 의미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준할수 있다. 그것은 어떤 목적에서 토를 연구하는가에 따라 토의 선택이 서로 달라지기때문이다.

토는 단어와 하나의 전일체를 이루는 문장의 구성요소이므로 문장속에서 어떤 단어들과 어떤 결합관계를 맺고 쓰이는가에 따라 토의 개수는 물론 그 의미개수도 다양하게 분석될수 있다.

이러한 연구방향에 따라 조선어의 토를 구체적으로 연구분석하는것은 우리 말의 우수성을 살리고 언어실천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모든 현상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볼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 토에 대한 연구를 더 심화시켜 아름답고 우수한 조선어를 더욱 발전 풍부화시켜나가야 한다.